시험 연습용

수험번호		성명	노영훈...	평점	

최근 금융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원하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캠코의 부채는 약 12조원을 넘으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코로나로 인해 파산하고, 장기연체자가 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으로서 부채 발행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악화된 재정건전성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으로서 지원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향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우선, 재무건전성의 악화만으로 지원을 중단하기에는 정책사업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캠코의 핵심사업인 '새출발기금', '새도약기금'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 역시 확대 했고, 여러 공공기관의 연체채권 상각비중도 낮아진 것을 고려했을 때,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가계·기업의 재기를 돕는 역할이 그 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해당사업은 정부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재정지출이 아닌 공기업 차원에서의 채권발행만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수행하고 있기에 재정건전성 악화는 분명히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 역시 이를 고려해 지난 해엔 1조 6,500억원 가량 출자했지만 올해는 편성하지 않은 것은 캠코의 재무구조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악화된 재정 상황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지속 여부는 기업 자체적 방안으로 발생한 것인지, 정부차원의 핵심사업으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해 필요한 정책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건전성도 분명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고환율, 고유가로 인한 CPI가 3%대를 돌파하면서 금리인상 기조가 전망되는 가운데 고부채 기업은 이자상환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본안은 금융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으로 크게 3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목표 설정이다.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 정부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정책의 효과가 일부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재무가 악화된 기업이 장기적으로 감소시킬 목표 부채비율을 설정하고, 자구적인 그 대안을 기재부에 제출하여 관리감독 받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캠코 역시 최근에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자구적인 재무 비율 관리방안과 그 대안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

본 문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허가없이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CamScanner로 스캔하기

한다면 심각하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일은 방지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현재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일 것이다.

두번째로 ~~정책~~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효율성 기선이다. 캠코를 예로 든다면, 채무조정 채권은 상당히 ~~많은 수준이~~ 많이 모유하고 있으나 가인 정보 접근 및 권한 문제로 상환능력을 면밀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는 부정확한 채무조정을 유발하고 과도한 자원예산 낭비와 일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효율적이고, 신속한 정책금융자원을 ~~유효~~ 막는 일부 요소들을 적절히 해소한다면, 재정건전성 문제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 공공기관의 재무비율만 지적하기엔 국가회원의 중대한 문제라면 적절한 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지원도 필요하다. 결국 공공기관와 국가와 연결된 하나의 주체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경제주체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우려면 지속가능한 재무건전성과 지원방안이 ~~필요~~ 제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본 문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허가없이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156966/업무지원팀/******.3.10/2026/06/18 10:37:08

CamScanner로 스캔하기